##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2000-2021

## 유혜진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시간강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간호사

#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Related to Burnout in Psychiatric Ward Nurses:2000-2021

#### Heaiin Yu

Part-time lecturer, Sahmyook University Nurse, Seoul Metropolitan City Eunpyeong Hostpital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22년 간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국내 연구논문의 현황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다. 국내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고 선정 기준에 맞는 총 14개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13개 연구가 횡단적 조사연구였으며 1개의 연구가 질적연구였다. 양적 연구 중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측정한 도구 중 Maslach Burnout Inventory(MBI)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나이, 결혼 여부, 임상경력, 정신건강간호사자격증 소지 여부, 월 급여, 종교 여부, 정신과 관련 교육을 받은 횟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근무 시 폭력 경험 여부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큰 규모의 횡단적 연구와 추적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간호사, 정신과, 병동, 소진, 연구 동향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ast twenty two years of research trends in the burnout of psychiatric ward nurses and suggests guidance for future studies. Five domestic databases were used in the literature search, and fourteen articles that met the inclusion criteria were reviewed. thirteen articles were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ies and one study was qulitative study. Among the quantitative study, the most used instrument to measure burnout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was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The individual factors related to burnout in nurses in psychiatric wards were age, marital status,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license status. monthly income, religious status and education related to psychiatry. The most related situational factor that affect burnout in psychiatric ward nurses was experience of violence. In future research, large-scal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ies should be conducted, and based on this, intervention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reducing the burnout of psychiatric ward nurses.

Key Words: Nurse, Psychiatry, Ward, Burnout, Trend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Heajin Yu(heajinyu@snu.ac.kr)

Received December 22, 2021 Accepted April 20,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직무소진은 조직 구성원들의 직장 생활 혹은 조직 생활 중에서 장기간 쌓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고갈상태를 의미하며 개개인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직무소진은 단순히 장기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끝나는 단순 현상이 아니며, 스웨덴과 같은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의학적 증상으로 확립되어 질병으로 분류된다[2]. 간호사의 소진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3]. 간호사는 막중한 책임감과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6].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역시,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소진에 이르게 된다[4,27].

다른 병동에 비하여 특히 정신과 간호사는 소진을 경험할 위험이 크며[5-7]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정신 병리적 특성으로 인한 폭력적인 행동 (신체적, 언어적) 또는 정신과적 응급 상황과 같은 예측 불허한 상황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5]. 둘째,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정신건강보건 법 개정에 따라 막중한 서류 업무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6]. 셋째, 정신과 병동 간호사는 환자의 기능과 능력을 최대한 향상하기 위하여 간호사 자신을 지속해서 치료적 도구로 이용해야 하므로 정신적 에너지가다량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7].

이러한 상황들은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을 일으키며, 소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 고갈상태로 나타난다[5-8]. 이는 정신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의 저하, 투약의 오류증가, 간호 이직률의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5-8]. 따라서,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간호 연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현재 간호학계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개념이나 현상을 선 별하여 이에 관한 연구논문들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작업으로 오래전부 터 인식되어왔다[9,10].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선행 연구 동향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Jeon 과 Beon[11]의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Han과 Kim[25]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간호사의 소진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신과 간호사는 근무부서 특성상 소진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병동에 비하여 크며 최근 정신의료기관의 폭력사건이 증가함에 사회적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4], 정신과 의료진, 특히 간호사의 소진 연구동향 분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신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하여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추후 실행되 어야 할 연구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 내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알아보고 소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 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연구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2년 간 발표된 국내 연구논문 중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이며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연구들의 특성을 확인하다.
- 2)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측정을 측정한 도구 유형 빈도와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 3)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개인 요인과 상황 요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정신과 병동 간호사에 관한 연구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문헌 분석 연구이다.

## 2.2 문헌 선정 및 제외 기준

본 논문은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논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소진을 측정한 연구(학위논문 연구 포함)
- 2)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연구

구체적인 논문 선정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정신과 병동 간호사 이외 다른 의료분야 종사자 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논문
- 2) Full text의 이용 불가로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

## 2.3 자료 추출 및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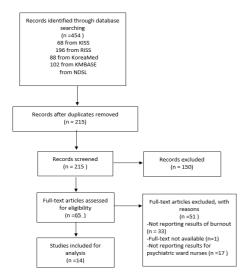


Fig.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최근 22년간 출판된 연구논문 중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 검색은 국내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총 5개의 데이터베이스(KISS, RISS, KoreaMed, KMBASE, NDSL)를 통해 시행하였다. 논문 검색에 사용된 주요 검색어는 '정신과', '병동', '소진', 'burnout', 'exhaustion' 이였으며 이들을 조합 하여 검색을 시행하였다. 문헌 관리는 EndNote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논문의 검색과 검토는 2021년 12월 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60일 동안 연구자와 연구보조 원에 의해 시행되었다. 분석 시 사용된 논문의 출처를 살펴보면, KISS(68편), RISS(196편), KoreaMed (88편). KMBASE(96편). NDSL(6편)으로 확인되었다. 총 454편의 논문 중, 중복된 논문 215편, 소진을 측정

하지 않은 논문 33편, 정신과 간호사 대상이 아닌 논문 17편,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논문 1편을 제외한 총 14 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Fig. 1). 학술지와 학위논문이 중복되었을 때는 학술지 논문을 선택하였다.

수집된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코딩하였고, SPSS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3. 결과

Table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최근 20년간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관련 연구논문의 특성을 살펴보면 13편의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였으며 1편의 연구는 질 적연구였다. 논문의 유형을 보면 8편(57%)이 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였고. 6편(42%)이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이었다. 간호학회지의 경우 정신간호학회 지, 경북간호과학회지에 연구가 게재되었고, 타 학회지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21, 보건사회연구, 보건의료 산 업학회지, 한국산학기술학회지에 게재되었다. 2019년에 4편으로 정신과 간호사 소진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진 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of the included research

Catananian	Year	Number	D
Categories	rear		Percentage
		of studies	(%)
Published year	2000-2009	2	14
	2010-2012	2	14
	2013-2015	2	14
	2016-2019	6	42
	2020-2021	2	14
Research	Descriptive,	13	92
design	cross-sectional		
-	Qualitative		
	_	1	1
Number of	Less than 100		
study	100-200	2	14
participants	200-400	6	42
		6	42
Publication	Master thesis	6	35
type	Nursing Journal	3	21
	Other Journals	5	35

#### 3.1 연구대상 논문의 상세정보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2). 분석된 연구의 연구참여자의 범위는 7명 에서 301 명이었으며, 연구참여자의 80% 이상이 여성임 을 알 수 있었다. 자료수집은 2에서 12개 사이의 정신과 병동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included studies

Study	Journal field	Name of the journal	Research design	Sample size	Gender Of the participants (female)	Number of data collection sites
Shin & Kim (2015)	Public health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156	87.2%	7
Ha & Kim (2021)	Nursing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147	83.3%	7
S.Y.Kim (2019)	n/a (Mater's 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cross-sectional)	108	90.7%	3
Yoon (2010)	n/a (Master's 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cross-sectional)	210	91.4%	12
Park (2015)	n/a (Master's thesis)	n/a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240	87.6%	n/a
Jang (2016)	n/a (Master's 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cross-sectional)	96	80%	2
Seo, Kang, & Jae (2019)	Industry-academ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204	80.9%	8
Kim, Kim, Lim (2012)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Descriptive (cross-sectional)	127	93.7%	5
Park, Lee, Kim (2020)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187	90.7%	12
Shin, Jang (2016)	Public health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239	94.1%	16
J.H.Kim (2019)	Public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Descriptive Survey (cross-sectional)	213	81.7%	4
No,Ha (2019)	Social Sc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Qualitative	7	100	1
Jang (2004)	n/a (Master's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cross-sectional)	301	290	10
Park (2007)	n/a (Master's thesis)	n/a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cross-sectional	127	113	11

Table 3. Statistical test used by the included studies

Year	Descriptive Statistics	<i>t</i> -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ron & Kenny Test	Sobel test
2004	1	1	1	1	1		
2007	1	1	1	1	1		
2010	1	1	1	1			
2011							
2012	1	1	1	1			
2013							
2014							
2015	2	2	2	2	2		
2016	2	2	2	2	1		
2017							
2018							
2019	3	3	3	3	3	1	1
2020	1	1	1	1	1		
2021	1	1	1	1			
All	13 (92%)	13(92%)	13(92%)	13(92%)	9(69%)	1(7%)	1(7%)

## 3.2 통계 자료 분석방법 동향 비교

본 연구에 포함된 통계분석을 비교한 결과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correlation analysis를 13편(92%)의 연구에서 사용 하였고,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분석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9편(69%),매개 분석방법인 Baron & Kenny test와 Sobel test를 사용한 연구가 1편(7%)으 로 나타났다(Table 3).

## 3.3 소진 측정 도구 및 측정수준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소진 정도를 측정한 도구는 총 4개로 나타났으며, 7편의 연구 (50%) 가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22]를 사용하였다 (Table 4). MBI는 1986년 Maslach와 Jackson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학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소진 측정 도구이다 [11]. 본 도구는 총 22문항(5점 척도)을 포함하고 있으 며 하부항목은, 감정소진(9문항), 비인격화(5문항), 자아 성취감 저하(8문항) 이다[22].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의 문항별 평균 점수의 범위는 2.14 에서 3.86임을 알 수 있었다. 3편의 연구에서는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version[21] (5점 척도 10문항)이 정신과 간 호사의 소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3편 중 두 연구 의 문항별 평균 점수의 범위는 2.75±0.55에서 2.71±0.52임을 알 수 있었다. 1편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감정노동과 소진의 r 값 (r=.010, p=0.900) 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편의 연구에서는 Pine, Aronson & Kafry (1981)의 5점 척도인 Burnout Measures (BM)[23] 이 사용되었으며 MBI 도구와 마찬가지로 소진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쓰이 는 도구 중 하나이다[11]. BM의 하위요인으로는 신체 적, 정서적, 정신적 요인이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3].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에서 BM 측정 도구의 문항별 평균 점수의 범위는 2.04점에서 2.68점 사이임 을 알 수 있었다.

#### 3.4 연구자 수별 동향 비교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의 연구자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저자 1인이 8편(57%), 2인이 4편 (28.5%), 3인이 2편(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연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이 6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5).

Table 4. Instruments used to measure burnout

Instrument	Number of Study (%)	Mean score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7(50%) 1.Jang(2004) 2.Ha & Kim (2021) 3.Park (2015) 4.Yoon (2010) 5.Jang (2016) 6.Shin, Jang (2016) 7.Seo, Kang, & Jae (2019)	3.86 2.43±0.17 2.57±0.58 2.54 2.14± 0.58 2.64±0.65 2.56±0.53
Burnout Measures (BM; Pines, Aronson & Kafry, 1981)	3(21%) 1.S. Y. Kim (2019) 2.Kim, Kim, Im (2012) 3.Park(2007)	2.68 2.6±0.59 2.04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version	3(21%) 1.J.H.Kim(2019) 2.Park, Lee, Kim (2020) 3.Shin & Kim (2015)	2.75±0.55 2.71±0.52 n/a 2.04±0.89

Table 5. Number of authors by year

Year	1author	2authors	3authors
2004	1(7.14%)		
2007	1(7.14%)		
2010	1(7.14%)		
2011			
2012			1
2013			
2014			
2015	1(7.14%)	1(7.14%)	
2016	1(7.14%)	1(7.14%)	
2017			
2018			
2019	2 (14.28%)	1(7.14%)	1
2020		1(7.14%)	
2021	1(7.14%)		
All	8(57%)	4(28.5%)	2(14.28%)

## 3.5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과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상황과 환경을 구성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적 요인(individuals factors)은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월 급여, 종교 유무 등이 분석되었다. Table 6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 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기혼자일수록(6편), 월 급여가 높을수록(3편), 종교를 가 지고 있을수록(3편), 1년간 받은 정신과 관련 교육을 받 았을수록(1편)정신과 병동 근무 기간이 길수록(8편,) 정 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4편)소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6. Individual factors related to burnout

Variable	Number of studies	Number of articles Reporting significance
Age	8 (57%)	8
Sex	1 (10%)	1
Education level	2 (14%)	2
Number of educations received in a year	1 (10%)	1
Marital status	6 (42%)	6
Monthly income	3 (21%)	3
Religion	3 (21%)	3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8 (72%)	8
Certificatio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4 (36%)	4

## 3.6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요인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 (situational factors)은 Table 7에 제시되었다.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 상황적 요인은 최근 근무 시 폭력에 노출된 경험 여부, 직급,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7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최근 정신과 근무 시 폭력을 경험할수록(5편),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을수록(1편)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2편), 긍정심리자본의 수치가 높을수록 (2편), 자기표현력이 좋을수록(1편), 직무 몰입이 높을수록(1편), 직급이 높을수록(3편), 소진의 정도가 그렇지 않은 정신과 간호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Situational factors related to burnout

Variable	Number of studies	Number of articles Reporting significance
Worksite	2 (10%)	2
Recent experience of violence	5 (45%)	5
Job satisfaction	2 (10%)	2
Self-expression	1 (10%)	1
Job stress	2 (10%)	1
Position	3 (27%)	3
Emotional labor	1 (10%)	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 (18%)	2
Job engagement	1 (10%)	1
Work shift	1 (10%)	1

## 4. 논의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근무부서의 특성상 타 부서 간호사들과 비교하면 소진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 이 크다. 이는 간호사의 이직률을 높이고, 양질의 간호 제공이 어려워져 결국은 사회적 문제로 이르게 된다.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년 동안 의 국내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관련한 연구 14편 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진 행된 원문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는 총 2편이었으나, 2010년에서 2021년, 최근 10년간은 총 12편으로 여섯 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의 소진 현상에 대한 심각성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더욱 확산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의 유형별 분석 결과,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연구 중 4편 (36%) 가 학회지에 게재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는 다소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시행된 문헌분석 연구결과[11] 와 일치하는 바이다. 석사학위 논문의 특 성상 연구대상자와 연구의 규모가 비교적 작을 수밖에 없어 대표성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규모가 확대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요인(individuals factors)은 나이, 학력, 결혼여부, 월 급여, 종교 유무 등이 분석되었다. Table 4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나이의 경우 연령이 낮을 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할수록, 기혼자일수록, 월 급여가 높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임상 경력이

길수록, 1년간 받은 정신과 관련 교육을 받았을수록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는 연령대가 낮고 근무 경력이 짧을수록 폭력을 경 험할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비교적 미흡하여 소 진을 경험하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신 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주기 적인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과 관련된 가장 큰 상황적 요인으로는 정신과 근무 시 경험한 폭력 유무였다. 최근 정신과 근무 시 폭력을 경험할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소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소진은 간호사의 이직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 이고,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질수록 간호 인력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량이 증대해져 결국 환자 간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12].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측이 불가한 폭력적인 상황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하며 폭력이 있는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법 과 주기적인 교육으로 폭력 예방에 대한 방안을 기관적 차원에서 모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일반적으로 연 평균 1일 입원 환자 수가 2.5명당 간호사 1명이지만[32], 정신병원은 간호사 1명당 환자 13명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33]. 간 호사 대비 환자 수가 많아질수록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한다[8]. 따라서 폭력 상황을 낮추고, 간호사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 인력 보충과 보안시스템 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수준은 각각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문항별 평균으로는 중간 이상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포함된 각각 연구의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연구 도구의 총점 또는 문항의 평균만으로는 정신과 간호사의 소진 상태 일반화 시키거나, 예방/중재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국내에서 더 많은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연구들을 진행하거나 다른 직종과 소진의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2009년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전공의의 소진 정도를 비교하여 측정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28],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다른 직종의 소진 정도를 비교한 연구가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에 관한 국내 연구를 분석하였고 향후 적합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최근 22년간 연구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고 13편이 횡단적 조사(cross sectional study) 연구, 1편이 질적 연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단위를 정신과 병동 간호사 로 국한되지 않고 정신과 병동 근무자를 통틀어 소진을 측정하고 각 의료직종의 소진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둘째, 22년간 정신과 간호사 대상으로 소진을 측정한 연 구는 14편밖에 되지 않았다. 추후, 더 큰 규모의 국내 연 구들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나이, 정신과 근무기 간)을 고려하여 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개발이 필 요하다. 넷째, 추후 연구에서는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가 시행되 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소진 감 소와 관련된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 **REFERENCES**

- [1] M. Galletta, I. Portoghese, M. Ciuff, F. Sancassiani, E. D. Aloja, & M. Campagna. (2016). Working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Job Burnout: A Cross-sectional Study Among Nurses. Clinical Practice & Epidemiology in Mental Health, 12(1), 132-141.
  - DOI: 10.2174/1745017901612010132
- [2] S. Melamed, A. Shirom, S. Toker, S. Berliner & I. Shapira. (2006). Burnout and Risk Cardiovascular Disease. Psychological Bulletin, 132(3), 327-353.
  - DOI: 10.1037/0033-2909.132.3.327
- [3] T. Woo, R. Ho, A. Tang & W. Tam. (2020). Global prevalence of burnout symptoms among nurs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23, 9-20. DOI: 10.1016/j.jpsychires.2019.12.015
- [4] S. Rezaei, B. K. Matin, M. Hajizadeh, A. Soroush & B. Nouri. 2018. Prevalence of burnout among nurses in Ira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65(3),

361-369.

DOI: 10.1111/inr.12426

[5] J. Kim. (2019). The Influence of Violent Experience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Burnout of Psychiatric Ward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3(3), 67-80.

DOI: 10.12811/kshsm.2019.13.3.067

[6] M. Y. Kim, S. J. Ha & S. S. Jun. (2018). The Clinical Experience of Adaptation as Novice Psychiatric Nurses in Hospital. *Global Health and Nursing*, 8(1), 17-28.

DOI: 10.35144/ghn.2018.8.1.17

- [7] H. J. Shin & G. H. Kim. (2015). Emotional Labor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Korean Psychiatric Nurs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4), 190-216. DOI: 10.15709/hswr.2015.35.4.190
- [8] J. W. Seo, M. R. Kang & N. J. Jae. (201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Burnout of Psychiatric Ward Nurses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Coping,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393-405.

DOI: 10.5762/KAIS.2019.20.7.393

- [9] E. O. Lee et al. 1992. Literature review on the nursing research for the concept of stress and anxiety.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22(3), 271-296.
- [10] M. H. Lee. (1996). Analysis of studies on work stress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8(1), 180-200.
- [11] K. J. Jeon &S. W Byeon. (2009). Nurse's Burnout Research Throughout the Past 10 Yea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3), 305-313.
- [12] M. Kim & G. Seomun. (2013). Relationships among Burnou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o Resign in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2(2), 93-101. DOI: 10.5807/kjohn.2013.22.2.93
- [13] M. H. Ha & N. H. Kim. (2021).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s of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5(1), 25-36. DOI: 10.38083/JKNS.25.1.202102.025
- [14] S. Y. Kim. (2019).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The Burn Out of Psychiatric Nurs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llanam-do.

- [15] Y. K. Yoon. (2010).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experience, Assertiveness and Burnout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6] S. M. Park. (2015). The Influences of Job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17] S. Y. Jang. (2016). Professional Self-concept,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degree on Mental Health Nurs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8] G. H. Kim, J. Y. Kim & J. R. Lim. (2012).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Burnout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1(3), 229-237.
- [19] S. M. Park, M. H. Lee & J. Y. Kim. (2020). Influences of Type D Persona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al labor on the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9(2), 133-142.

DOI: 10.12934/jkpmhn.2020.29.2.133

- [20] S. H. Shin & K. S. Jang. (2016).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Strategy on Job Burnout and Job Engagement in Psychiatric Nurse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2(4), 33-44. DOI: 10.22900/kphr.2016.42.4.004
- [21] B. H. Stamm. (2010).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fatigue version 5 (ProQOL). [Online],

http://www.proqol.org/uploads/ProQOL\_5\_Korean.pdf\_

- [22] C. Maslach & S. E. Jackson. (1986). MBI-human services survey. Mountain view: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Online]. https://www.mindgarden.com/276-burnout
- [23] A. M. Pines, E. Aronson & D. Kafry. (1981). Burnout from tedium to personal growth. New York: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24] J. H. Bae, H, K. Lee & C. Y. Chung. (2020). A Study on The Status of Violence in Psychiatric Institu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iatry*. 25(2), 87-95.
- [25] S. W. Han & H. S. Kim. (2015). Analyzing Research Trends on Burnout of ER, ICU, and OR Nurses in Korea.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19(1), 34-42.
- [26] H. S. Park & E. H. Gang. (2007). A study on job stress and the coping of ICU nurses. *Journal of*

- Korean Academy of Nursing, 37(5), 810-820.
- [27] H. J. Park. (2009). Emotional labor emotional expression and burnout of clinical nurses. 200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2), 225-232.
- [28] I. W. Jeong. (2009). The Attitudes, *Emotional Reaction,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and Physicians toward Suicidal Behavior of Psychiatric Inpatients*.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29] J. Y. No & Y. M. Ha. (2019). Qualitative Study on Burnout Experience of Nurses in Psychiatric Hospital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21*, 10(2), 1067-1082. DOI: 10.22143/HSS21.10.2.76
- [30] S. J. Jang. (2004). Relationship between Exeprience of Patients' Violent Behaviors and Buurnout of Psychiatric Nurs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31] J. U. Park.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2] S. H. Cho. J. Y. Lee. K. J. Jeon. K. J. Hong. & Y. M. Kim. (2016). Nurse staffing Levels and Proportion of Hospitals and Clinics Meeting the Legal Standard for Nurse Staffing for 1996-2013.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3), 209-219. DOI: 10.11111/jkana.2016.22.3.209
- [33]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Disorders (Attachment 4). Number of workers and qualification standards for mental medical institutions [related to ArtIcle 11(2)].

## **Appendix**

#### List of Reviewed Studies

- H. J. Shin & G. H. Kim. (2015). Emotional Labor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Korean Psychiatric Nurs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4), 190-216.
   DOI: 10.15709/hswr.2015.35.4.190
- [2] M. H. Ha & N. H. Kim. (2021).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s of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5(1), 25–36. DOI: 10.38083/JKNS.25.1.202102.025
- [3] S. Y. Kim. (2019).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The Burn Out of Psychiatric Nurse: Mediating Effects

-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llanam-do.
- [4] Y. K. Yoon. (2010).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experience, Assertiveness and Burnout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5] S. M. Park. (2015). The Influences of Job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 [6] S. Y. Jang. (2016). Professional Self-concept,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degree on Mental Health Nurs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7] J. W. Seo, M. R. Kang & N. J. Jae. (2019).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Burnout of Psychiatric Ward Nurses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Coping,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393-405.

DOI: 10.5762/KAIS.2019.20.7.393

- [8] G. H. Kim, J. Y. Kim & J. R. Lim. (2012).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Burnout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1(3), 229-237.
- [9] S. M. Park, M. H. Lee & J. Y. Kim. (2020). Influences of Type D Personal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al labor on the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9(2), 133-142. DOI: 10.12934/jkpmhn.2020.29.2.133
- [10] S. H. Shin & K. S. Jang. (2016).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Strategy on Job Burnout and Job Engagement in Psychiatric Nurse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2(4), 33-44. DOI: 10.22900/kphr.2016.42.4.004
- [11] J. Kim. (2019). The Influence of Violent Experience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Burnout of Psychiatric Ward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3(3),* 67-80.

DOI: 10.12811/kshsm.2019.13.3.067

[12] J. Y. No & Y. M. Ha. (2019). Qualitative Study on Burnout Experience of Nurses in Psychiatric Hospital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21, 10(2), 1067-1082.

DOI: 10.22143/HSS21.10.2.76

- [13] S. J. Jang. (2004). Relationship between Exeprience of Patients' Violent Behaviors and Buurnout of Psychiatric Nurse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4] J. U. Park.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Psychiatric Nurs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유 혜 진(Heajin Yu)

## [정회원]



· 202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 졸업

· 2018년 9월 ~ 현재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간호사

· 202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시간강사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 E-Mail : heajinyu@snu.ac.kr